

정부조직법 협상 무산... 조각 명단 발표 강행

사상 초유 '내각 없는 정부' 탄생하나

李당선인 "더 이상 발표 미루면 국정 대혼란" 통합민주 "협상하자 해놓고... 정당정치 파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갑작스런 조각 발표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18일 협상이 끝내 무산, 사상 초유의 '내각 없는 정부 탄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당이 이처럼 심리적 마감시한이었던 18일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물리적 최종가능시한인 19일 오전까지도 돌파구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새정부는 출범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8일 오후 7시에 국회 정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오늘 6시 이후하기로 한 협상이 없던 일로 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8시에 조각발표를 하기로 해 오늘은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야당을 우롱하는 것이고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당정치를 파괴

하는 위험한 정권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재협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던 이날 오후 6시30분께 안 원내대표 측에 "오늘 협상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마지막 협상으로 예고됐던 이날 밤 협상이 무산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이 협상 시작 시간인 오후 6시를 20분여 남기고 "타결 여부에 상관 없이 조각 발표 강행"을 선언했기 때문. 이에 앞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18일) 타결되면 되는데, 결렬되면 결렬되는 대로 마지막이라는 판단이다. 오후 8시에 새 정부 각료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협상하기로 해놓고 이게 무슨 법이나. 이명박 당선인 사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삼정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조각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는 타협은 없고 독선만 있느냐"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또 "양당이 협상한다는 것을 알고도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조각명단) 발표하는 것은 총칼만 있을 뿐이지 계엄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독선의 정치가 이명박 당선인의 정치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동관 대변인의 발언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협상의 전권을 갖고 있지

만 이명박 당선인의 호루라기 소리에 협상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도발적인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위는 정당정치 이념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통합민주당은 19일 본회의의 비밀 투표를 통한 표대결을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비상 조각' 강행 카드를 들고 나오는 등 협상에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밤 협상을 남겨둔 상태였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밤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9일 김효석 원내대표와 연락해 협상 재개 여부와 어떤 협상을 할 것인지 등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해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김효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손학규 대표도 같은 뜻"이라고 말해 협상에 더 이상 나설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0대 10명 ... 경륜·전문성 중시

■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구성 어떻게

실물 경제 전문가 대거 포진 경제살리기 최우선 '눈가림식' 호남 배려 되레 지역민 불만 초래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경륜'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특장이다.

또 경제부처는 물론 비경제부처 장관에도 실물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이 당선인이 '경제살리기'를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60대 장관 10명. 국정안정=이번 내각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들보다 연령대가 한층 높아진 게 특징이다. 15명의 유력 후보 중 무려 10명이 60대이고 50대는 5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4세로 '60대 내각'이라고 불릴 만 하다. 72세인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평균 연령대는 더욱 높아진다. 이는 경륜을 중시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이 묻어있다는 평가다. 이 당선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진을 발표하면서 "내각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을 선택했다"고 언급, 내각에는 상대적으로 경륜이 많은 고연령층을 인선할 것임을 예고했다.

청와대 수석진은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도 52세였다.

◇지역인배 어찌나=지역 편중 시비에 농림부 장관에 내정된 정운천(고창) 한국농업CEO연합회장이나 특임장관 몫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남주홍(순천) 경기대 교수가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인배에 신경썼다고 하고 있으나 정 농림의 경우 고창이고, 남 국무의 경우 원적만 순천일 뿐 본적은 서울이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번에도 광주·전남 배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정중환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 이춘호 국무위원 내정자는 충청 출신이며,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이상희 전 합참의장은 강원 출신이다. 청와대 수석진 인선에서는 호남, 충청, 강원 출신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영남권 출신 인사가 4명(강만수, 김경한, 원세훈, 이영희)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출신이 각각 3명과 1명이었다.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의 경우 북한 신의주가 출생지다.

◇박사장관 6명, 서울대·고대·梨花=장관 유력 후보자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강만수, 김도연, 유명환, 김경한, 원세훈, 김성이, 이영희)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정운천, 정중환)와 이화여대(박은경, 이춘호) 출신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대(이윤호), 육사(이상희), 중앙대(유인촌), 건국대(남주홍) 등이 1명씩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6명이나 됐다. 김도연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프랑스 클레르몽페랑대 공학박사인 것을 비롯해 이윤호(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 김성이(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박사) 내정자 등 3명이 해외 박사 출신이며 박은경 환경장관, 이영희 노동장관, 이춘호 국무위원 내정자가 국내 박사 출신이다. 청와대 수석 인선 당시에는 7명의 수석 중 6명이 미국 박사 출신이었다.

◇공직·민간 출신 5분, 교수출신 강세=15명 가운데 전·현직 공직 출신 인사가 6명(강만수, 유명환, 김경한, 이상희, 원세훈, 정중환), 민간 출신이 6명(김도연, 유인촌, 정운천, 김성이, 박은경, 이영희)이며, 이윤호 산자부 장관 내정자와 남주홍, 이춘호 국무위원 내정자는 민간과 공직 경력을 두루 갖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강만수 경제, 부처 30년 근무 '경제맨'

김경한 법무, 검찰내 'TK 인맥' 대부

■ 초대 내각 '면면'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의 면면이 출범 일주일 앞둔 18일 우여곡절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새 정부 조각 명단에 포함된 장관 내정자들은 공직과 민간에서 일가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로, 주요 경력의 차관, 전경련 부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초대 '경제수장'을 맡게 된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부처에서만 30년 한 우물을 판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맨이다. 경남 합천 출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행정고

시(8회) 동기이며 재무부 이재국장, 세계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 요직을 거친 뒤 1998년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김도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는 과학계 건의에 따라 막판 조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통상부 장관에 내정된 유명한 주일대사는 외시(7회) 출신으로 35년째 직업외교관으로 외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북 안동 출신의 김경한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검찰내 'TK(대구·경북)인맥'의 대부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내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김대

중 정부 시절 법무차관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중이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육사 26기 출신으로, 합참의장 시절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을 설득해 2012년으로 이양시점을 늦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새 정부의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장관에 각각 내정된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유인촌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이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신임을 얻은 인사들이다.

부처 장관 가운데서는 유일한 호남(전북 고창) 출신인 정운천 농림부 장관 내정자는 해남에서 참다래 농장을 경영하면서 '벤처농업계의 이견희'로 불리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존치 기대했는데..."

통일부 직원들 망연자실

통일부는 그동안 조조하게 기다려온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부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통일부 장관이 빠진 조각 명단이 발표되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18일 오후 새 정부 내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만해도 '오늘이야 결론이 나는구나'하는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막상 장관 내정자가 발표되지 않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팀장급 한 공무원원은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후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했다"면서 "오늘은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통일부는 부의 존치 여부가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이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막상 다음달 북측에서 비무장지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임명조차 안되는 사태가 계속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협 분야에서 일해온 한 팀장은 "이런 상황이 올 불충분 때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상황이 빨리 정리돼야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행 가능한 합의들에 대한 남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 직원들은 부가 존치할 경우 장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주홍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 팀장은 "솔직히 남 내정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전제하고 "일단 군사나 안보쪽으로 전공한 분으로 아는데 남북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아쉽지만 담당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업무가 소홀한 데가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보청기 세계보청기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세상에는 수많은 보청기 제조사가 있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보청기 제조사는 세계보청기입니다. 세계보청기는 세계를 넘어 우뚝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계보청기

10215311-99000